

## 미국에서 본 한류와 케이팝

澎湃新聞(Pengpai Newspaper): The Paper, 2021년 10월 28일

인터뷰: Yanxiao He(이엔시아오 허, 何彦霄)

번역: Hye Eun Choi(최혜은)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작년 9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후 비영어권 텔레비전 시리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서구에서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 가수가 됐다. 금세기 초부터 한류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화를 석권했다. 지금은 중국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류는 유럽과 미국의 문화 시장을 휩쓸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문화 '역류'(counterflow)현상으로까지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자국 내에서 경제, 과학 및 기술 위상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점점 더 자신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강조하며 중국 문화를 밖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류의 성공적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국내 대중문화 산업의 변화와 고

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감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The Pengpai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 재직 중인 김경현 교수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동아시아학과와 비주얼 스터디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 영화와 대중 문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전문가이다. 최근, 그의 새 저서Hegemonic Mimicry: Korean Popular Culture of 21st Centure가 듀크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본 지는 그의 신간을 바탕으로 김 교수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 한국 대중문화 연구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Yanxiao He:** 교수님의 초기 연구는 한국 영화에 관한 것 입니다. *The Remasculinization of Korean Cinema*와 *Virtual Hallyu: Korean Cinema of the Global Era*라는 두 권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구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im Kyung Hyun:** 30년 전인 1992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첨예하게 논의되었던 쟁점들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화 연구와 미디어 연구가 인문학 분야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문화 연구와 탈식민주의 연구였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이 출판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저는 학부 때 『오리엔탈리즘』을 읽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저자의 핵심 이론에 부분 수긍했습니다. 서발턴 스터디(Subaltern Studies), 버밍햄 스쿨(Birmingham School), 스튜어트 홀 (Stuart Hall) 등 당시 유행했던 것들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

한 것들을 어떻게 한국 관련 연구에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영화 연구가 그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해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을 한국 영화 연구에 도입하고 발전을 도모한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연관시켜 한국 영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영화 이론학에 입문했습니다. 제가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대학원생이었을 때, 데이비드 제임스(David E. James) 교수가 영화 이론과에 계셨고 저의 멘토가 되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셨죠. 우리는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졸업하기도 전에 공동으로 책을 편집했습니다. 그것이 제 영화 연구의 시작입니다.

**Yanxiao He:** 하지만 나중에는 연구 분야도 확장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USC의 최영민 교수와 *The Korean Popular Culture Reader*를 편집, 출판하셨는데, 북한까지도 포함하는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책은 영어권에서 최초의 ‘한국 대중문화’ 관련 저작물 중 하나로, 미국을 휩쓸었고 중국에서는 잉클버드(Uncle Bird) 라고 불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편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im Kyung Hyun:** 〈강남스타일〉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는 당시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강남스타일〉이 그때까지 미국에서 한류가 일으킨 유일한 센세이션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동방신기

와 같은 SM 엔터테인먼트에 속한 아이돌 그룹들이 이미 아시아와 그 외의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인터넷TV가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감이 있었고, 영화 《기생충》 이전에도 한국 영화들은 이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한류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책을 편집,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류가 금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전 현상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현상에만 치중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대중문화는 20세기 전반에 태동된 현상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 걸쳐 21세기 케이팝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편집한 책은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석까지 포함하여 한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최초의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저자들에게 저널비평 형식의 글을 쓰지 말고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장르에 주목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강남스타일〉과 같은 대중적 현상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역사적 깊이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The Korean Popular Culture Reader가 꽤 많이 팔렸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이 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군요.

**Yanxiao He:** 이제 미국을 휩쓴 가장 핫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 등 한국 현대 대중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담은 저작 *Hegemonic Mimicry*를 출간하셨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작업은 보통 여러 저자의 글은 엮은 편저 형식으로 출판 되는데, 작년 파리 아메리칸 대학교(The American University of Paris)의 김연아(Kim Youna) 교

수가 엮어낸 *The Soft Power of the Korean Wave* 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책도 BTS, 《기생충》 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까지 다루고 있죠. 어떻게 단독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야심 찬 책을 집필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Kim Kyung Hyun:** 이 책은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에게서 차용한 ‘헤게모니’입니다. 우리는 ‘헤게모니’를 폐쇄된 시스템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협상으로 여기며 헤게모니를 창출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넓은 의미의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문화 헤게모니를 미국인이 지배하는 닫힌 시스템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그 중에서도 백인만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종종 오해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종 그룹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미국 문화 헤게모니를 개선하고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왔을까요? 한국은 75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이 팍스아메리카나에 참여해 왔고, 이 지점이 한국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념 ‘모방’(mimicry)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인 호미 바바(Homi Bhabha)에게서 차용한 개념입니다. ‘모방’은 피식민자들이 식민지배자의 지배적인 문화, 행동 및 담론을 따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항상 모방하지만 모방 할 때마다 모방자와 피모방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괴리와 차이에 큰 흥미를 가집니다. 지배적 패러다임은 재창조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마

침내 다이내믹한 변종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헤게모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난 70년 동안 해 온 이 일이 제가 *Hegemonic Mimicry*을 쓰면서 주목하고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Yanxiao He:** 제 생각에는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탈식민주의와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결합입니다. 한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탈식민주의적 접근을 언급하셨습니다만, 학자들은 한류를 일종의 그 외 지역(the rest)에서 ‘서양’으로 온 일종의 역류(counterflow)현상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한류 연구는 한류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한류를 착취와 억압의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책의 서두에서 교수님께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취하셨는데, 그 자본주의적 불합리성에 대해 비교적 신랄한 언급을 하십니다. 나중에 삼성과 한류 산업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시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본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해석을 하시죠. 특히 일부 한류스타들의 자살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삼성공장 여직원들과 비교하기도 하셨습니다. 탈식민주의와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의 조화를 시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류 연구자들이 때때로 한류 팬덤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종교학 및 미국학 전문가인 캐서린 로프턴(Kathryn Lofton) 교수가 미디어에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종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팬들에게 이메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류 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접근법을 조정하거나 더 재치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고 합니까?

**Kim Kyung Hyun:** 아니요! 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한류나 한국 대중문화 산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류 자체가 패권이 된다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한류에 대한 ‘민족학’(Ethnic Studies)을 복원시키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75년 동안 미국화를 받아들였고, 한국은 어느 정도 팩스 아메리카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세기’에서 한국인들은 많은 문화적 흐름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가 한류라고 부르는 미국 문화 헤게모니의 결가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삼성과 한류에 대한 챗터에서 정치경제적 분석은 경쟁이 치열한 시스템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의 희생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 문화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제가 삼성을 한류와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한류의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인기가 유지될 수 있는 주기는 일반적으로 삼, 사 년에 불과합니다. 그 뒤엔 무대에서 사라지거나 운이 좋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비로 좀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비인간적이며,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많은 추악한 부작용과 모순을 보여줍니다.

**Yanxiao He:** 교수님이 책에서 강조하듯이, 한류 산업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네크로폴리틱스’(necropolitics)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연습생들은 자신들이 유명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이를 반영한 좀 더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 한 사람만이 게임에

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돈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게임에는 관객, 즉 부유한 백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고대 로마의 야생 동물을 상대로 하는 검투를 관람하는 귀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게임 주최자인 오일남은 글로벌자본주의 체제의 매판자본가(comprador)에 가깝습니다. 최근 교수님은 《오징어게임》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게임에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오징어게임》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과 관련하여 이 한국 드라마가 한국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탐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Kim Kyung Hyun:** 저는 《오징어 게임》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뉴욕타임즈에서 프랭크 브루니(Frank Bruni)가 쓴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문화 평론가이며, 그의 시각이 현재까지 주류 언론에서 《오징어 게임》의 해석을 대변합니다. 즉, 우리는 드라마가 반영하는 피비린내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라는 그림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 음침해서 청소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주요 반응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웠던 것은 내면의 폭력이었습니다. 저도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린이용 게임을 보여주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드라마를 풍자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은 비극적입니다. 지난 이삼십년 동안 한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 아닌 가난한 계층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의 80%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겼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말미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혹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얻은 교훈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쟁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사회 계급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자본주의는 더 이상 평등한 기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서양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와 다릅니다. 유명한 한국 드라마들은 더 이상 선이 악을 이긴다는 주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일종의 역사적 희생자라는 트라우마를 내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선이 결국에는 악을 물리친다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한국인들이 선과 악의 단순화 된 줄거리에 감정 이입을 하며, 인간의 선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이야기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매우 한국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니가 드라마를 다 안 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이것이 신자유주의, 폭력, 과열경쟁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한 드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징어 게임》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끝까지 본다면 이 드라마가 매우 다이내믹하고 결말도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이 드라마 엔딩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이기는 것도 나쁠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오징어 게임의 서사입니다. 이것이 전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의 이해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Yanxiao He:** 교수님의 책에는 《기생충》과 《극한직업》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오징어 게임》과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 한국 힙합 전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대중음악은 아이돌 음악이지만, 한국에는 당연하게도 아이돌 음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중음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그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챕터를 쓰셨습니다. 교수님의 책 표지에는 드렁큰타이거와 윤미래가 함께 공연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서이지(Cedar Bough Saeji) 교수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한국 힙합의 전통 간의 대화를 주제로 Journal of World Popular Music의 특집호를 공동 편집하셨습니다. 음악 평론가 김영대도 자신의 저서 BTS: Review에서 음악학의 관점에서 보이그룹 BTS 음악의 힙합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중 문화에서 힙합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im Kyung Hyun:** 많은 사람들이 힙합은 역사와 무관한 멋진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 힙합은 실제로 전통적입니다. 이것은 슬럼과 연관이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표현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한국 아이돌 그룹에는 래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에도, EXO에도 래퍼가 있습니다. 래퍼들은 아이돌 그

룹의 필수 멤버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 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랩은 어떻게 한국 음악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을까요? 민족적 차원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이 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제 책의 서두에서 저는 전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의 막사에서 활동한 한국 가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들 가수들은 주한미군캠프에서 벌어지는 인종갈등의 목격자였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인 군인은 소울 음악과 펑크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백인 군인은 컨트리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나이트클럽 소유주와 미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수들은 그 갈등을 해소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미국 문화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주면서 한국 문화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악이 어떻게 인종 갈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도 랩이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한국 힙합 전통의 잉태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회 논평은 한국 힙합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힙합은 일련의 신체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의 시적 형식이기 때문에 사회 및 민족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챕터를 쓰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종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을 함께 분석하면서 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또다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한국의 힙합 뿌리내리기는 헤게모니 모방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Yanxiao He:** 교수님은 연구도 하시지만 활발한 문화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편의 영화에서 공동 감독을 맡으시거나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최근에 올해 초 유튜브에서 방영된 《마스크 논쟁》(Mask Debate)라는 연극을 쓰셨습니다. 이 연극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되는지에 관한 논쟁을 바탕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비미국적(un-American)인 행동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 하에서 미국의 정체성 문제는 당신의 예술적 창작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힘합이 한국적 정체성의 표현이라면, 교수님의 글을 통해 “한국성”(Koreanness)이라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im Kyung Hyun:** 저는 학자의 일은 무엇인가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며 창의적인 예술가나 작가가 되는 것이 학자가 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창작 예술가나 문예 작가를 본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때때로 후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모든 상점과 학교가 문을 닫았고 여행까지 취소되는 상황이 반년 동안 지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격리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인입니다. 코비드 확산을 막기 위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디다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부모님과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백인이었고, 내가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매우 불쾌해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그들과 다른 공동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런 차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어떻게 감히 나와 내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되었던 당시에는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셈이었죠. 저로서는 그들의 반응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극을 통해 많은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배우들은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제가 연락을 취한 대부분의 배우들은 저의 연극에 큰 지지를 보이며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 연극은 유튜브에서 공개되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제가 속한 미국 내 커뮤니티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꿈이기도 했던 창작을 저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anxiao He:**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아이돌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류의 세계적 성공을 의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훈련 받은 일부 중국 아이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에서 아이돌 산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과 스캔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가 한창 재정비 중입니다. 교수님은 책에서 한국 아이돌 산업이 전후 민족 국가로서의 한국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 가수들이 당대의 미국 팝 음악 트렌드를 흡수해 주한 미군의 취향을 충족시킨 점을 지적합니다. 최근 아이돌 산업과 관련된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서 이러한 ‘헤게모니 모방’의 성공적인 경험들이 한국 외의 지역에서는 재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Kim Kyung Hyun:** 저는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의 부상은 미국 패권 시대에서 마지막 문화 센세이션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대가 지나면 중국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대는 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생산 자체의 발전 법칙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열린 태도와 같은 수많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바로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중국 시대의 도래를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국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기도 한, 미국 세대의 진정한 대체물을 생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 외에도 문화 발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달아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입니다. 문화 부흥에 이르기 위해서는 문화 발전의 법칙을 존중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류의 성공적인 경험이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The Paper:** 말씀하신 대로, 한류는 미국 시대의 마지막 센세이션일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한류가 미래에 다른 미국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책의 서두에서 언급하셨습니다. 한류의 성공은 가히 학자들의 미래 세계 문화 질서에 대한 반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A&M대학교 김주익 교수는 “BTS as Method”라는 논문에서 방탄소년단은 ‘반헤게모니 문화’(counter-hegemonic culture)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국 대중문화 외에 또 하나의 ‘한류’가 존재합니다. 즉 산드라 오(Sandra Oh)의 성공과 같이 전통적으로 백인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The Chair*에서 백인이 지배하는 영문학과와 첫 여성이자, 동시에 아시아계인 학장 역을 맡았습니다. 감독과 각본가가 주인공을 중국인이나 일본계 미국인이 아닌 한국계으로 정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또한 고전학(영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백인들의 주제)에서도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전학자 채영인(Yung In Chae)은 2020년 인기 고전학 저널 *아이돌론* (Eidolon)에 “Like Dionysus: BTS, Classics in K-Pop, and the Narcissism of the West”라는 기사를 게재해 미국의 주류 고전학자들이 보이그룹 BTS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매우 중요한 고전학 분야에서 대학원 상을 수상한 세 명 중 두 명은 일정 정도 한국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사례

는 한국 문화가 영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제 주류 문화 질서에 진입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im Kyung Hyun:** 그것은 매우 길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방탄소년단 이든 《기생충》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많은 가사나 대사가 영어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미국을 대표하는 감성(sensibility)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만큼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기생충》은 더더욱 그렇죠. 한국인들은 때때로 《기생충》의 유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미국인들이 이 영화에 한국인보다 더 몰입할 수 있고, 감독의 의도한 유머 코드에 더 많이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면 기생충이 해외 관객들의 취향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죠. SNS나 인터넷 TV로 인해 언어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Google의 번역 기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언어는 여전히 두꺼운 장벽이지만 예전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중 문화를 소비할 때 언어의 벽을 쉽게 벽을 넘을 수 있는 감각과 스타일 더욱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제가 문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논의와 담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세계화를 수용하고 소셜 미디어 혁명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은 나쁜든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뷰: 케이팝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예일대 사회학자 그레이스 카오  
교수의 소견

澎湃新聞(Pengpai Newspaper): The Paper, 2022년 1월 21일

인터뷰: Yanxiao He(이엔시아오 허, 何彥霄)

번역: Hye Eun Choi(최혜은)

최근 몇 년 간 케이팝이 유럽과 미국에서 각광받고 발전해온 모습은 미국 학계에서 많은 관심과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21년 10월, 펀치뉴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국영화 전문가 김경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음악,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대중 문화 장르에 대한 그의 심도 있는 견해를 들어 보았다. 그 이후로도 케이팝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2021년 11월 말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Permission to Dance〉 콘서트가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됐는데, 20만 명이 넘는 현장 팬들과 전 세계의 수많은 온라인 시청자들이 모여 공연을 즐겼다는 점을 볼 때, 2021년 미국에서 개최된 음악 행사 중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방탄소년단의 로스앤젤레스 콘서트를 꼽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한류의 세부 분야인 케이팝 음악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나누기 위해 예일대학교 사회학과의 그레이스 카오(Grace

Kao, 高玉蘋, Gao Yupin) 교수를 인터뷰했다. 카오 교수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예일 대학교로 옮겨 현재 예일 사회학과의 IBM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종과 이민 및 가족사회학 분야에서 선두적인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년 간 케이팝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미국에서의 한류와 인종 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왔으며, <인종과 장소: 영국 뉴웨이브,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Race and Place: British New Wave, K-pop, and Beyond)>라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케이팝 팬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 본지는 카오 교수가 사회학자로서 한류에 대해 지닌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고자 다음 인터뷰를 진행했다.

**Yanxiao He:** 교수님께서서는 가족, 인종 그리고 이민과 같은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하신 사회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어떠한 계기로 한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Grace Kao:** 먼저 인터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류는 그 와중에 우연한 기회로 생기게 된 관심사입니다. 팬데믹 발발 이전인 2020년 2월, 저는 어느 한국학 대학원생 학술대회에 지도교수로 초청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류 산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음악인류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원석(Lee Wonseok)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음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일대 사회학과 학과

장을 맡고 있던 때라 스트레스가 막심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선생님께서 BTS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보내주셨고, 흥미가 생긴 나머지 BTS의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선생님과 대화도 지속해 나갔습니다. 저에게 몇 가지 다른 비디오를 보라고 제안해 주셨고, 이를 통해 케이팝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었던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들 속에서 본 한국 아이돌들은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저를 포함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Yanxiao He:** 그 후 예일 대학교에서 <인종과 장소: 영국 뉴웨이브,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라는 학부 세미나를 가르치셨는데, 영국 뉴웨이브와 케이팝이라는 두 장르의 음악을 다루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선행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을 위해 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Grace Kao:** 물론입니다. 사실 이원석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음악에 관련된 수업을 개설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영국 뉴웨이브 음악의 팬이었습니다. 영국 뉴웨이브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발생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뉴웨이브의 기원은 다양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1947-2016)와 록 밴드인 록시 뮤직(Roxy Music)을 포함하는 글램 록(Glam Rock)의 영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뉴웨이브 음악을 하는 남성 가수들은 모두 분장을 했습니다. 동시기에 스카(ska) 리바이벌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스카라는 트렌드는 자메이

카 음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영국 노동자 계급 청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 뉴웨이브의 근원은 일차적으로 클럽 록, 그리고 스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밍엄과 같은 노동자 계급의 중심지는 스페셜즈(The Specials)나 매드니스(Madness) 같은 밴드들의 활동을 통해 영국 스카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클럽 록에서 파생된 뉴로맨틱(New Romantic) 장르가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죠. 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모두 옷을 멋지게 잘 차려 입었고, 대다수가 런던의 블리츠 키즈 (Blitz Kids)와 같은 클럽에서 활동했습니다. 보이 조지(Boy George)도 마찬가지였고, 해적으로 분장한 아담 앤트(Adam Ant)도 있었죠. 모두 영국 뉴웨이브에 속합니다. 영국 뉴웨이브의 또 다른 특징은 신디사이저의 출현과 연관이 있는데, 이전 악기들에 비해 저렴하긴 했지만 둔탁하고 차갑다고 할 수 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영국 뉴웨이브에서 일부분에 불과했고, 사실 패션이 음악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이 때쯤 MTV(Music Television)가 등장하여 확산되었습니다. 뉴웨이브 아티스트들은 음악과 패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MTV와의 예상치 못한 공존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음악을 전파시킨 주요 매체는 라디오였고, 뉴웨이브 곡 중 일부는 청중의 관심을 끌어 음악 차트 40위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70-80년대에 성장하면서 저는 이런 음악 트렌드의 팬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라디오 시장은 인종적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었는데, 흑인을 대상으로 삼은 방송국들이 주로 소울,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블루스를 송출하고 있었다면, 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들은 록을 방송했습니다. 영국 뉴웨이브는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백인이었지만, 스카는 좀 더 다양

한 인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 뉴웨이브 아티스트 대부분이 옷을 잘 차려 입는 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미국 음악 라디오 방송국에서 흑인 아티스트들에 비해 뉴웨이브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보다 손쉽게 송출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뉴웨이브의 발원지 중 하나였던 자메이카 음악의 창시자 중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관련이 있는 중국계 및 인도계 서인도제도인(West Indians)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간간히 작곡하는 구멍가게 주인들이었지만, 그 음악을 연주했던 것은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르의 팬으로서,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그 기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국 뉴웨이브와 케이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들의 유사성, 특히 시각적 감각이 음악 자체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케이팝 공연에서는 모든 출연자들은 일상복 대신 무대 분장과 화려한 의상을 장착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십대 때 열광했던 영국 뉴웨이브가 떠오릅니다. 저는 케이팝 메이지먼트 회사의 창립자들이 저와 같은 또래들이고, 젊은 시절에 분명히 뉴웨이브 음악을 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독자 여러분께서는 케이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생각할거리를 덧붙이겠습니다. 케이팝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적인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특유의 음악 생산 방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수업에서는 주로 연예기획사 밑에서 연습생 활동을 하다가 선 발된 아이돌 그룹에 집중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통념으로 우리는 오늘날의 케이팝이 1세대 아이돌이 나타나기 전에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서태지 이전의 음악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 뉴웨이브가 끝난 시점이 바로 한류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해서 시간적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그 둘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부분의 케이팝 아이돌들이 영국 뉴웨이브를 듣고 성장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미국 팝 음악을 들었을 거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 뒤, 세대 별로 아이돌 그룹을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각 그룹이 어디에서 왔는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그룹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논의를 깊이 확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팝과 구분되는 케이팝 음악의 특징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팝 음악은 3분 길이로 주 선율과 후렴구 사이를 오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 브리지에 이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발매된 곡들은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케이팝은 이런 미국 음악보다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노래에는 랩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선율과 구분되어 마치 다른 곡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도 더 많습니다.

또한, 케이팝은 대체적으로 춤과 음악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케이팝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케이팝이 한국 음악인지에 대한 질문 또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케이팝 곡들은 온전히 한국의 음악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글로벌 생산 라인과 같은 체계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아티스트들에 의해 창작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미 국제화되었고, 예컨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오디션을 실시하는 등, 전 세계에서 연습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식 모델이 미국에서도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식 모델의 여러 요소들은 미국 노동법의 많은 조항에 저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아이돌들을 훈련시킨 바가 있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 모델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지요.

**Yanxiao He:**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Grace Kao:** 지금까지 이 수업은 딱 한 번 개설했고, 내년 봄학기에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의 피드백이 어떻다고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수업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수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수강생 대부분이 만 18세가 된 예일대 신입생들이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저는 이 학생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모든 음악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송출됐습니다. 음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어야 했던 거지요. 오늘날의 학생들은 유튜브나 스

포티파이(Spotify)를 사용하고 있고, 이 매체들의 특징은 개인의 청취 선호도에 따라 유사한 노래를 추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본인이 듣고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반적인 음악 장르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며 자기가 이미 좋아하지 않는 음악은 듣지도,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라디오에서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 자주 나올 때 그런 음악을 많이 들어야 했던 것을 딱히 즐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들에 비하면 저는 음악 장르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 학생들은 유사한 스타일의 음악만 듣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듣고 있는 음악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차이가 종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자로서 제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학생들도 수업을 즐겼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주별로 들어야 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매주 수업 전에 목록에 있는 노래를 듣고 관련 뮤직비디오를 감상한 뒤 노트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또한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활동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영국 뉴웨이브든 케이팝이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일반적으로는 각 음악가들과 그들의 노래가 독립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장르가 됐든 해당 장르의 음악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고, 또한 소속사를 옮겨 다니며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한국의 모든 곡들 간의 연관성을 확실히 짚어 내지는 못했지만, 제 눈에도 그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회학자로서 그것을 이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노래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의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음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각 아이돌의 영혼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여기며 음악에 집중하지만, 그 뒤에 존재하는 음악 제작의 메커니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케이팝의 제작 메커니즘 속에서 아이돌 그룹들은 서로의 음악을 들으며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많은 젊은 청취자들은 그러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뮤직 비디오와 대중 문화 모두에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일종의 ‘레트로(retro)’ 현상으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충성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사건들은 모두 레트로풍이라고 간주되어, 1950년대부터 금세기 초까지 일어난 일들을 구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90년대를 테마로 잡은 레트로 뮤직비디오가 있다면 사실은 70년대의 색상 또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보고 단순히 과거가 재현되어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도 또 다른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학생들은 케이팝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그 중 몇몇은 10년 이상을 특정 걸그룹의 팬으로써 케이팝 노래만 들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제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케

이팝 노래를 전혀 들어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BTS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한류보다 영국 뉴웨이브를 더 잘 아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두 장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Yanxiao He:** 케이팝에 대해 가르칠 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일부로서 영화, 드라마와 함께 가르치거나, 또는 C-Pop이나 J-pop과 묶어서 동아시아 대중음악의 일부로 가르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영국 뉴웨이브와 한류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성을 설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르는 매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을 가르치실 때 어떠한 방법론과 접근방식을 사용하시는 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Grace Kao:**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음악 장르 한 가지로 수업을 개설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분은 예일대 음악과에서 다섯 가지 장르를 아우르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영국 뉴웨이브와 한류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 수업의 내용과 구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의 내용과 교수법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으며, 특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영국 뉴웨이브와 케이팝을 비교하면서 두 장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케이팝만 가르쳤다면 케이팝 팬들이 서로에게 자신이 케이팝의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제 수업이 팬들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과시하는 장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국 뉴웨이브와 한류는 비주얼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한 인종이나 민족이라는 주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소프트파워에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됐습니다. 이는 뉴웨이브에서 비틀즈와 같은 밴드들을 통해 ‘브리티시 인베이전 (British Invasion)’을 이룬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소프트파워가 진정한 힘인 셈이죠.

**Yanxiao He:**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면, 이원석 선생님과 함께 케이팝과 관련된 논문을 두 편 게재하셨습니다. 하나는 케이팝이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서유럽에서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탄소년단과 “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인종 관계 및 청소년 발달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 오셨는데요, 유럽과 미국에 있는 십대 케이팝 팬들이 성장하면 새로운 인종 관계나 인종적 상상력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race Kao:**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변화를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언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류가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서양의 대중음악계와 연예계에서 아시아인은 어떤 존재감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중국계의 경우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저희와 비슷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미국의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종 관계, 특히 다른 인종의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관계(interracial relationships)에 대해 꽤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수행한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은 데이트 시장에서 불리하며, 매력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데이트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영화와 TV 쇼에서 아시아인은 연애에 있어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종종 과학자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로맨스의 대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가 매력적인 남성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진전입니다. 한편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출연한 배우에게도 매력을 느낍니다. 아시아계 여성들의 경우 이미 여러 매체에 정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시아계 남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국가(특히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소외된 존재라고 느끼곤 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아웃사이더이고 이례적인 존재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시아계 청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아시아계 배경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미국 내 한류 열풍이 이를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류가 어떻게 일부 아시아인들에게 아시아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온라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며, 저 자신도 일부 학생들을 통해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

니고 한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화면 속의 남녀 한류 아이돌들은 산뜻하고 빛나는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그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굶주림에 가까운 식단조절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의심할 여지없이 긍정적입니다.

**Yanxiao He:** 미국에서 한류의 성공을 논하자면, 한류가 미국에서 팬데믹의 수혜를 입었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닥치자 한류는 순식간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이 종식되려면 한참 멀었던 작년 연말에도 방탄소년단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팬들이 모인 가운데 네 차례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팬데믹이라는 맥락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방탄소년단의 지난 7월 곡 〈Permission to Dance〉는 특히 미국의 팬데믹을 주제로 한 곡으로, 연말 미국 콘서트의 타이틀곡이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 어떻게 미국에서 한류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Grace Kao:**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케이팝 산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음악 시장을 가진 반면, 한국은 그 자체가 큰 음악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

에 한류 아이돌은 한류 초창기부터 해외 활동에 염두를 두며 발전해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하기 이전부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온라인에 노래를 올리기 시작하는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ermission to Dance〉를 언급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팬데믹에 관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앨범 〈BE〉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 뒤로 발표된 BTS의 노래 중에서도 많은 곡들이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의 삶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었으며, 특히, 유튜브 및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TS를 포함한 한국 그룹들은 웹 상에서 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Dynamite와 같은 BTS의 노래에 “좋아요”를 누르자마자 수천 개의 관련 비디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방탄소년단은 팬과의 소통을 잘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갇혀 우울해하고 있을 때 방탄소년단의 긍정적인 노래와 춤에 대해 알게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일부 노래가 팬데믹이나 우울증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매우 쉽게 방탄소년단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BTS의 열성 팬이라고 부르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멤버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관계성, 즉 우리 모두 집에 갇힌 팬데믹 상황에서 ‘나도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질투를 유발하는 멤버 간의 관계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미국에서 BTS를 비롯한 케이팝 그룹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됩니다. 케이팝 그룹들의 SNS 계정 팔로워 수를 보면,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TS는 현재 트위터 팔로워 수가 4,300만 명으로, 1년 전의 2,500만 명에 비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명의 멤버 전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인 계정들의 팔로워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뷔(김태형)는 현재 3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멤버들도 각각 2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틱톡(TikTok)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은 방탄소년단의 트윗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옹호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탄소년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몇 가지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사람들이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 그룹을 형성합니다. 오프라인 공연이 없을 때는 온라인 공연에만 참석해야 했죠. BTS는 첫 온라인 공연으로 무려 75만6000장의 티켓을 팔았습니다. SM은 2020년 4월, 미국 여행이 금지된 지 한 달 만에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달에 방탄소년단은 이를 연속으로 첫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개최했고, 무료 온라인 콘서트도 8회나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온라인 콘서트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무료 콘서트가 자신들의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의 콘서트는 유료 공연으로 전환되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공연도 종종 있었습니다. BTS는 첫 번째 유료 콘서트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 공연에서는 더욱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기록도 세웠습니다. 〈강남스타일〉 이후 미국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새 기록을 세운 것인데 바로 2020년 9월에 〈Dynamite〉가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BTS는 빌보드 정상에 도달한 곡을 여섯 곡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세운 사례는 비틀즈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미국의 음악 차트가 비영어권 아티스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팬들은 사람들이 BTS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Dynamite〉와 〈Butter〉는 유튜브에서 공개 24시간 내 조회수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것도 BTS인데, 음반판매 1위와 2위를 그들의 앨범이 차지했죠. 이는 케이팝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발전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TS의 노래 중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이 영어로 된 것이긴 하지만, 발표하는 곡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어 노래입니다. BTS가 등장하기 전에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비서양권 국가의 가수가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으리라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BTS가 미국에서 한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BTS 외에도 훌륭한 그룹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도 BTS의 경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중 몇몇은 미국 토크쇼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2019년 4월〈Saturday Night Live〉를 보고

방탄소년단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때가 그들이 아시아계 뮤지션으로서 첫 출현이라는 기록을 세운 때였습니다. 그 당시 바로 팬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시아계 친구들도 BTS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Yanxiao He:** 선생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한류 연구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아미(ARMY)의 일원으로 여기며 트위터를 통해 다른 팬들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연구의 관점에서 교수님은 내부자로서의 측면과 외부자로서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부 사회학자들은 학계의 지식생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지식 생산이 너무 전문적이며 일반 대중을 배제시킨다고 꼬집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라는 분야에서는 때때로 팬들이 연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를 연구하는 행위가 실제로 새로운 지식 생산 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도 생각하십니까?

**Grace Kao:** 제가 사회학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지식 생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류의 경우, 우선 한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그 내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든 한류의 팬이 아니라면, 한류를 연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수행한 각각의 연구 주제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팝은 서양 음악보다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

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실제로 케이팝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일종의 팬이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한류의 팬들만이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을 팔로우한다고 가정하면, 방탄소년단들이 음악을 발표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들의 모든 음악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다작하는 다른 아이돌 그룹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류 연구에서 있어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관계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Yanxiao He:** 2016년부터 중국 한류 팬들은 중국에서 한류 라이브 콘서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 케이팝 연구자들은 케이팝 콘서트에 대해 얘기할 때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김숙영(Kim Suk-Young) 교수가 빅뱅 콘서트를 참여관찰하면서 밝혀낸 것과 마찬가지로 케이팝 콘서트의 성격이 콘서트보다 팬 모임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중국의 일부 라이브하우스에서는 한류의 열렬한 팬들이 모여 케이팝에 대한 애정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 케이팝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한류를 현장에서 관찰하게 해주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양적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 접근하시는 편이시긴 하지만, 만일 사회학 박사 과정생이 라이브하우스를 박사 학위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Grace Kao:** 좋은 사회학자나 사회과학자라면 누구에게나 유의미

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우선 라이브하우스를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한다면, 먼저 라이브하우스를 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왜 흥미로운 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곳이 아닌 하필 그 공간에 위치한 라이브하우스를 거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기 위해 서로 다른 현장을 비교한 다음 이 현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고유한 시사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연구를 할 때는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출연자와 관객이 누구인지, 이들이 왜 참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케이팝에 지닌 애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꼭 이런 조직적인 행사를 통해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민족지(ethnography) 연구를 지향하는 학자라면 최소 1년은 현장 연구를 수행하는 데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행사들이 계절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주최측, 출연자, 팬들과의 심층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민족지 연구자라면 메모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는 음악 행사 중에는 실시하기에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족지 연구는 양적 데이터 분석처럼 가설을 먼저 세운 뒤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서 얻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해주는 일반적인 조언은 본인의 연구가 가치가 있음을 어떻게 독자나 청취자에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라이브하우스를 연구하는 경우, 그들의 논문을 읽거나 발표를 듣는 학자들이 한류에 관심이 없고, 중국

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음악에 관심이 없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의 연구 질문에 흥미를 갖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연구자가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가 종종 제 학생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강의를 듣는 청중이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 그들이 점심 메뉴를 뭘로 할지 같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에게 강연자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이 다른 사람의 글 대신 굳이 당신의 글을 읽는데 한 시간이나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글을 쓸 때 우리는 독자가 누구인지 계속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박사과정생들은 연구가설을 세우면서 자신의 청중이 누구인지, 자신의 연구가 왜 흥미로운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의 두 인터뷰 기사는 중국의 선두적인 디지털 미디어 매체인 The Pengpai(The Paper, 澎湃)의 The Culture and Ideas Column(思想市场)을 통해 출판된 것이다. 이 매체는 이전 시카고 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고대사 박사과정을 끝내고 논문을 집필 중인 이엔시아오 허(Yanxiao He, 何彦霄) 선생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글을 작성 하였다. 김경현 교수와 그레이스 카오 교수의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원본을 접할 수 있다. 김경현 교수 인터뷰: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074523](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074523), 그레이스 카오 교수 인터뷰: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6318885](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6318885)

상하이 뉴욕대학교(Shanghai New York University)에서 한국 문화사와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혜은(Hye Eun Choi) 교수가 번역을 맡았고, 중국어를 영어로 일차 번역하는 과정에서 Yicen Cai과 Ziyun Yang 두 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한국어 번역 이후 김교수와 카오 교수의 확인 과정을 거쳤음도 밝힌다.